

투데이 칼럼

말의 신비한 능력

우리말 가운데 배 아픈데 어머니의 약손은 특효약이다. 어머니가 '달마 손은 약손' 하며 배를 쓰다듬어주면 웬만한 배앓이의 고통은 신기하게도 사라진다. 아픈 배를 쓰다듬어 편하게 하는 물리적 치료 효과에 '달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이 주는 최면 효과가 어우러져 북풍이 사라진 것이다. 이는 말이 갖는 신비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말의 힘'을 믿어왔다. 여러 사람이 '해가사(海歌詞)'라는 노래를 불러 절세의 부인을 구했다거나, '항가를 지어 불러 '괴성(魁星)'과 '해병(倭兵)'을 물리쳤다는 이야기 등은 언어의 주술성을 그대로 믿는 고대인의 언어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언어관은 지금도 변변히 이어지고 있다. 가령, 새해인사의 덕담(德談)으로 "금년에 장가를 갔다지" 혹은 "올해 아들 낳았다지" 등과 같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말하는 것은 말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김 양 옥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 또는 "말한 대로 된다"와 같은 관용 표현을 강조하는 것도 '말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말에는 묘한 힘이 있다. 말이 이끄는 대로 생각이 미치고 또 행동이 따라오게 되니 그 힘을 부정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남을 해치교야 말겠나'는 자기 독백은 자신의 사고를 은연중 그러한 쪽으로 몰고 가 결국은 위험한 행동까지 유발하게 한다. "나는 정말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나 같은 놈은 이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야", "나는 정말 재수 없는 놈이야"와 같이 자기 비하의 부

정적인 말은 정말로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교야 만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행동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또 그 행동의 결과도 부정적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 대신 "나는 어떤 일든 할 수 있어", "나는 우리 회사에 절대로 필요한 인물이야", "나는 정말 운이 좋아" 등과 같은 긍정의 말을 해보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맑아지고 기운이 산뜻해져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말이 최면을 걸어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는 바가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말의 힘'을 믿고 늘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말한다. 어떤 어려운 상황의 와도 비관하지 않고 사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최면을 건다.

"이쯤이야 나에게겐 아무 일도 아니야. 노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와 같이 말한다. 과거 세계권투 해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도 "내 말이 50%, 내 기술이 50%로 세계 왕좌가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러면 자기 독백은 현실화되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이런 사람은 희망을 주는 기본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고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

성공하려면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보고, 또 긍정적으로 말하라. 그래도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큰 소리로 기도하듯 말하라. 절실한 기도는 자기 최면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긍정은 행복을 낳고 부정은 불행을 낳는다는 진리를 깨달아 성공과 행복을 낳자.

사설 고군산군도의 연결도로 개통

고군산군도의 모든 연결도로가 개통되었다. 해를 넘기지 않고 연결 도로에 개통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군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2.820억 원을 투입해 신시도-무녀도-와 선유도-장지도까지 대공사를 마무리했다.모두 8.77km의 구간이다. 돌이켜보면 삼년 세월의 대공사로서 그에 대한 감회가 없을 수 없다.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의 개통으로 관광객 유치에 기대를 건다고 말했는데 그 바탕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믿음이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의 개통 소식은 다시 새만금 사업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우리 전북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현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정부 쪽에 사업규모의 확장에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정부 쪽에서 주는 처분에 만족하려 한다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 전북도는 새만금이 지역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임을 강조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을 단지 전북만을 위한 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데도 아무 말 않고 잠정하게 있는 것은 도민들이 볼 때 마뜩지 않다. 전북도는 올해 새만금사업과 관

련해 민족스러운 듯이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화자찬이지 않다. 도민들이 볼 때 공감할 부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면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애를 쓴 것은 사실이나 그것으로 할 일을 다한 것은 아니다. 전북도는 어떻게 해서든 새만금 사업의 미래를 약속받아내야 했다. 그런데 그게 내년으로 미루어져 버렸다. 그게 도민들은 많이 아쉽다.전북도는 힘을 내야 한다. 전북도가 나서서 새만금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하겠는가.

적극적인 노력 없이 수동적으로 기회를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여기 다시 말하거나와 도지사과 고위 관계자들은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키우겠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장차 아리울이라는 대도시로 키우겠다고도 여러 번 말했다. 그렇다. 새만금의 발전 목표는 뚜렷하다.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제 목소를 내야 한다. 고군산군도의 연결도로 개통은 그에 대한 성취동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사업 추진을 더욱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내야

올해 일자리 창출이 미흡하다.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내야겠다. 전북도는 대통령이 했던 말을 삼가해야 한다. '단 1인의 국가 예산이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겠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그 말은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그 무엇보다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겠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식과 관련해 야당 쪽에서 논란이 일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전임 정부 때부터 시작된 '휴수저니' '헬조선'이니 하는 말이 지금도 되뇌어지고 있다. 88만원 세대가 77만원 세대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병리 현상이 여전히 뿌리가 깊다. '금수저'들은 부도 세습되고 일자리도 세습되는 관던지 서민 가정의 자라들은 그 형세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낙후된 우리 지역의 현실에 눈을 주어야겠다. 도내 젊은이들 중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며 고민하는 이가 아직도 적지 않다. 매년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착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 난감하다.

대학교 졸업장이 백수 인증서가 되고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해 전북도는 준비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우리 쪽 청년들의 꿈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또 말하는데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의 의도가 좋아도 이쪽에서 붙잡는 힘이 약하면 나중엔 다른 광역시도의 그것과 비교해 실망하게 될 수도 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부응해 큰 성과를 냈던 것처럼 일자리 창출에도 성공 사례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북도는 생각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모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다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커플링사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는 보도가 다시 생각나는 것이다. 전북도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 견제방식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면 그래야 한다. 전북도는 내년에 일자리 실적을 밝은 마음으로 도민에게 확인시켜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독자제언

고령화 사회, 노인 교통사고 대책 시급

우리나라는 해가 지날수록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2030년에는 그 비율이 약 20%까지 상승하여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형태로 될 예측도 나오고 있다.

사망 교통사고 수치는 OECD국가 중 해마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보행자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1%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교통사고로 숨진 노인 절반이상이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 중 보행자가 많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보행속도 및 인지반응시간 저하, 주

의능력 감퇴 등 신체적 특성 변화에 따른 사고 위험성 증가와 노인을 고려한 도로나 교통안전시설 미비 등도 노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노인교통사고 대책으로 첫 번째는 노인들이 자주 출입하는 공원, 경로당, 양로원 등을 실버존으로 정하여 노인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는 노인인 대한 교통안전교육, 홍보를 강화해야한다. 교통사고 심각성을 노인에게 알리고 사고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안전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노인교통사고는 한 개인의 힘으로는 예방할 수 없다. 시민과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서 어르신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박재원전북경찰청 기동대 순경

독자제언

교통사고 후 그냥 가지 마세요!

교통사고로 사람이나 차 등을 충격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사고를 일명 '뺑소니'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54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불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사람에게 이르게 하거나 도주하

는 등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받게 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또는 5년간 면허 결정 기간이 부과된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여부 등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관할하는 말만 듣고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반드시 연락처 등을 교환하고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이번 기회로 뺑소니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히 이해하고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한다.

백요셉고창경찰서 순경

사와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